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 그 이후 성장
성장 과정 중에 해야 할 일: 섬김(막10:42-45)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 minister, ministry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는 근본주의 교회들, 교회가 커 가는데 리더들의 섬김이 부족하다.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칠 필요가 생김
사역=섬김 즉 종이 되는 것, 목사만이 나이라 모든 그리스도인
위어스비 목사님의 두 책: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On Being a Servant of God)〉, 〈건강한 사역자입니까?(10 Power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

1.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개관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 著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원래 초판 1993, 개정판 2007)은 '목사의 목사'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워렌 W. 위어스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들려주는 자상한 조언을 담고 있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1929년 5월 16일), 25세, 1953년 북부 침례교 신학교(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1-1978년까지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 '목사의 목사'(pastor's pastor), 여러 사역, 100여 권
1950년 크리스천 사역을 시작한(안수는 1951년) 이후로 어언 60여 년간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강연과 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은 그는 달았다.
이 깨달음은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과 더불어 명약과 같은 지혜로 30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서술되고 있다.

1. 사역의 추억, 2. 사역자는 누구인가?, 3.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
4.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 5.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6. 부르심에 신실한 사역
7.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역, 8.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9. 인격을 통한 사역
10. 성숙함의 사역, 11. 포용하는 사역, 12. 웃음과 사역
13. 다리를 놓는 사역, 14. 전환기의 사역, 15. 이동기의 사역
16.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17. 나이든 세대와 사역, 18. 젊은 세대와 사역
19. 독서와 사역, 20. 가정과 사역, 21. 기쁨의 사역
22. 성경과 사역, 23. 복음과 사역, 24. 신실한 사역
25. 고통과 영광의 사역, 26. 심판대와 사역, 27.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
28. 용서와 사역, 29. 돈과 사역, 30. 미래와 사역

이 30가지 주제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단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기쁨의 사람도 더 이상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의 현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격려해 준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데다 실력도 출중한 명의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에 있어서 병적인 요소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효과적인 처방을 해준다.
그는 기독교 사역이란 "대형 교회나 가장 큰 교회학교, 최고 실력의 성가대 또는 효율적인 새 신자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는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전부라고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헛된 야망과 신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겸손히 진실하게 따를 것을 격려하며 그 방향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위어스비 목사님은"사역이 수월했던 시기는 단 한 순간도 없었지만, 편리한 전자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많이 힘들며, 그 이유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전과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원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속이며 파괴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 이면의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지도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나침반도 배의 키도 모두 버리는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토대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역은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부르심에 신실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사역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풍부한 목회경험을 토대로 '포용하는 사역,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다리를 놓는 사역, 인격을 통한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의 방법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도 있다.

"우리 모두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겪는 '기분 내키지 않는 날들'말입니다. 다행히도, 기쁨을 주는 사역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바탕을 둡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의 호불호에 근거해 동기가 부여되는 사역은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며, 배려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같이 고난을 함께 견디어내야만 합니다."라고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다.

책을 읽는 가운데, 내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위어스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정의이다.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역에 대한 이 정의는 평생 붙들어야 할 원리이다. 또한 저자는 인격의 중요성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나무의 그림자는 명성이며, 나무의 열매는 성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인 인격이라는 것이다. 인격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인데, 이러한 인격이 사역의 뿌리라는 말에 매우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저자는 웃음이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GEM에 지원한 선교사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선교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 후보자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으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는지 상관없이, 유머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교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웃음과 유머감각은 앞으로 내가 계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평소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유쾌하게 대화하는 법을 훈련 중이다.

2. 사역의 정의

전임 사역자, 자원 봉사자든 섬기는 사람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사역의 정의를 내린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1.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희열
2. 시지푸스(시시포스)가 못된 짓에 대한 형벌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영원토록 굴려 올리는 부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

사역 초창기: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려움

로마의 속담: "항해사가 자신이 어떤 항구로 가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라도 순풍이 아니다."

최고의 교육, 지식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몰랐다.

바다 항해에는 나침반, 그런데 육상 지도,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헤매다가 드디어 원리 발견

"방법은 많다. 그러나 원리는 적다. 방법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원리의 이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 방법이 소용 벗다: 배와 키 모두를 버리는 행위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사역의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1. 필요가 있는 사람 발견: 육체의 질병, 영적인 사망

2.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줌

3. 이 사람의 질병과 영적 사망 해결, <u>반드시 질병을 고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u>

4.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믿음

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눈을 떠야 합니다.

②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③ 하나님의 강력한 자원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④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질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1. 하나님을 만났는가?

2. 그분의 자원들을 아는가?

3.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4.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가?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가?

우리 교회: 주방, 옥상 주차관리, 방송실, 안내, 심방(상담), 교사, 찬양

갈6:1-10

3. 사역자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사역은 섬김이다.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사역을 하기 위해 신학교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역은 섬김이다. 여호수아, 모세의 사역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주는 자'(distributor)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자'(manufacturer)로 부르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을 소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풍성함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뿐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행3:6)

사역이란: 고후6:3-10, 특히 10절

4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적(마14; 막6; 눅9, 요6)

1.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14:13)
2.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방법을 모름, '돌려보내자. 알아서 사먹게 하자'(15), 자기들의 무능을 모름
   그들에 대한 긍휼이 없다. 주님의 말씀: 돌아가다가 쓰러진다.
   우리는 혹시 어떤가?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
3. 빌립의 말: 충분한 돈이 없다(200데나리온, 요6:7). 돈이 있어도 해결 불가, 어디서 그 빵
4. 안드레의 발견: 소년의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요6:9)
   제자들의 문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5.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닌 '나누어주는 자들'로서의 제자들이 필요했다.
6. 기도하시고 빵을 늘리셨다.
   빵이 늘어나게 만드신 것은 주님이었고, 늘어난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닌 나누어주는 자로 인정하면, 사역을 할 때 놀랍고도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채워주시는 자원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어 내려고 애쓰다가 좌절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복을 주실 때 그 명예를 직접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시126:1-3, 바빌론 포로 생활, 해방, 이집트 탈출 등

이것은 기적이다.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의 이름: 은혜, 총 170회(39, 131), 창6:8

그리스도로 인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요1:16

거대한 바다의 이미지, 다함이 없는 풍부함을 가지고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

우리는 은혜를 살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만한 자격도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뿐이다.

섬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지 저장고가 아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자원이 없는지)를 아는 일꾼들이 가장 부요하게 된다.

가장 많이 나눠 주는 일꾼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어 결국 베풀 것이 가장 많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우리는 만들어내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원들 곧 경험, 훈련, 돈, 재능, 교육 같은 것에 자꾸만 의존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채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능력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효과적인 사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과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전15:10).

마케도니아 교회의 아이러니, 고후8:1-5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8).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파산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역자가 되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가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4.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역을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역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또한 사역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거의 견디기 힘든 정도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역 즉 섬김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감은 채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은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다. 빌2:3-4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정이나 지위와 직함과 명예와 특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교묘히 이용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을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련해서 행동하는 또 다른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에 대해 알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눅10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스도인의 섬김에서 민감한 영과 부드러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감함을 잃고 무관심해지기도 쉽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 조지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거룩한 일들의 껍데기만을 습관적으로 다루는 성직자(리더)만큼 해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글은 종교적 직업전문인 근성에 대해 지금까지 읽어본 글 가운데 최고의 정의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필요가 생길 때까지만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된다.

아마도 이런 점이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자선 활동 사이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차이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참된 크리스천 사역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불러 일으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같은 문제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부모의 문제, 아이들의 고통, 아이들의 문제 부모의 고통, 회사의 부도, 많은 종업원들의 고통,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교회는 승천하신 구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막10:45

이것이 곧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말이다.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말하지만, 섬김의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역이다.

'열매'와 '결과'는 같지 않다. 여러분은 성공이 보장된 방식, 또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카리스마를 드러냄으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열매'는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씨를 그 안에 가지게"(창1:11-12) 되는 것이다. '결과물'은 계산되고 이내 통계 속에 파묻히겠지만, 살아있는 '열매'는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배가시킬 것이다.

5.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1. 하나님의 자원, 2. 사람들의 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역 즉 섬김이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로 우리를 찌를 것이다.

즉 도우려 하면 오히려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아가페 사랑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섬김의 동기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요3:16

고후5:13-15

사랑의 통로는 수동적 통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통로 또한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 가운데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힘든 일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때문에 문젯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또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 보이지 않는 보호용 가시를 세우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1.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 2. 우리를 위해 그 필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어떤 이들은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을 비난한다.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한다.

빌1:9, 사랑이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져야 한다.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섬기려 하면 안 된다.

갈5:22,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이런 사랑은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다.

누군가나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한다.

그러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더욱 증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엡4:30-32

하나님은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두신다.

사역만 원하시면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후자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지금 하던 일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하면 동일한 문제가 괴롭힐 것이다. 도망갈 수 없다.

모세, 엘리야 등도 죽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어디에 가도 문제와 문제투성이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통로가 되어야 그 사랑을 알게 된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 묵상, 그리고 유혹이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빚어간다고 말함.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사역의 대상, 사랑의 통로

6.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u>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u>

하나님의 자원, 사람들의 필요, 사랑의 통로, 최종 목표는 그분의 영광

고전10:31, 계4:11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위조수표, 위조화폐, 다 쓰일 수 있다. 결국 심판, 마찬가지이다.

영광이 된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성취한 일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것인지, 주님을 드러낼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질투(사42:8)

출20 십계명, 다른 존재를 그분보다 위에 두면 우상숭배, 탐욕이다

혹시는 우리는 인격 메이커가 아니라 이미지 메이커는 아닌가?

대선 후보 토론회 등, 이미지 메이킹, 성도가 여기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일이 더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1.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요15:8), 미디어 선교 등, 성경 번역 교전, 17년째, 수 없이 본다.
2. 원수들의 대적이 심함(고전16:9), 사탄은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함, 사14의 루시퍼,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핍박하게 됨

출32장의 금송아지 숭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심(7)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함(10)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바람(11-13)

그의 관심사는 본인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함, 이것이 모세의 사역 결과

예수님은 가장 큰 사역자, 그분의 말(요17:4)

딤후4:6-8

7. 부르심에 신실한 사역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제부터는 기독교 섬김 사역의 여러 측면에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자 한다.

섬김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빌2:13,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다.

살전5:23-24,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다.

모세의 경우, 출3-4장,

출3:11, 내가 누구이기에 가냐? 나는 말을 못한다(출4:10),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기독교의 섬김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차분하게, 두려움 속에 이루어져 한다.

요나의 경우 사역 거절, 많은 시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다.

심지어 건강, 수명, 유전자 구조까지(렘1:5)

위어스비의 간증: 운동과 손재주 부족, 따돌림,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용해야 한다.

즉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

위어스비의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설교자나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지 말라. 좋은 것은 배워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독특함이 상실되면 안 된다. 윤계영, 이춘광 형제님

세 번째 포인트: 나의 장점 강화, 약점 보완할 수 있는 동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교회는 없다.

나도 계획을 못 짠다.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롬12:3)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전12:14, 18-19, 27).

인간의 본성: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

전도자는 신학자, 성가대원은 설교자 등

5달란트 받고 더 하려는 야망을 갖는 것 OK

그런데 현실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마25:21, 23)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다.

8.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Joy 선교회, (고후4: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주님, 너희, 우리

모세 시대 제사장(출28:1, 3, 4, 41 등), 희생 제사, 말씀 가르침, 사람들 문제 재판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골3:23-24, 주께 하듯 해야 한다. <u>항상 주님 먼저, 사역의 대상, 나</u>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좋은 점

1. 좋은 동기 부여, 내 주님을 섬긴다. 사례비를 위해 일하면 이런 동기가 안 생긴다.

2. 사람의 인정 추구, 인정이 없으면 일하고 싶지 않다.

3. 역경을 뚫고 나가는 힘: 주님을 섬긴다. 주님의 일이다.

4.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말1:8, 13 좋지 않은 짐승, 총독에게 드려보라(말1:8),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데이빗 리빙스턴(AD 1813-1873),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를 위해 하늘 왕좌를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5. 이렇게 하면 짐이 가벼워진다(요일5:3).

6.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이 함정에 빠지면 섬김이 불편해진다. 짐이 된다.
베드로의 말(요21:18-23),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23)

9.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위어스비: 나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계획을 나누며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고 확실히 믿는다,

엡2:10

캠벨 모르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가 행할 선한 행위들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무한한 자원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시139편, 수태부터 모든 것 기록, 예비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가르친다.
좋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아브라함, 기근 이집트, 자기 아내에 대해 두 번 거짓말
이삭도 자기 아내에 대해 거짓말
야곱도 속임수의 명수
모세 자기 뜻대로 살인,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려고 함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큰 자인가?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

이런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빚으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쓰러지면 갈6:1을 보아야 한다.
징계, 회복,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를 통해 변하고 교제를 회복하며 성장한다.

엡2:10의 의미: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준다.
요셉의 감옥 행, 에레미야의 감옥 행, 바울과 실라의 감옥 행, 다윗의 고난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 이것들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결국 감당하게 하신다.

원래 예레미야는 평범한 제사장, 그러나 그는 렘1:18의 사람이 되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만일 여러분이 계속 감당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10.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요즘 대중 매체는 목사들의 비리, 교회의 비리(공금 횡령, 학위 조작, 간음)를 집중 보도한다.

대상: 거짓과 위선을 행하다가 주님의 복음에까지 치명타를 받게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위선: 은행원의 공금 횡령, 운동선수의 약물 복용, 법률가들의 증거 조작

의사들의 마취제 빼돌리기, 이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거짓말,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뉴스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도 위선이 난무하다.

사회가 부패되었다고 교회와 사역자가 부패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의 섬김 사역과 인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라이먼 비처 목사(Lyman Beecher, 1775-1863), 그의 이름을 따서 라이먼 비처 설교 강좌가 예일 대학에서 세워짐. 처음 75년 동안의 설교를 분석한 백스터 박사의 결론

"라이먼 비처 설교 강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설교자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다. 설교자의 인격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기초였다." 이것은 단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필립 브룩스의 예일 대학 강의: "사역을 위한 준비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유능한 말씀 증언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출 때까지 사람의 전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삶의 중요한 목적은 진실에 입각해서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개성, 재능, 경험이 다르다. 그러나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므로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1840년 10월 2일,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가 선교 사역 훈련을 받기 위해 독일로 떠나는 다니엘 에드워즈에게 보낸 편지

"나는 자네가 독일에서 기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 믿네. 또 독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아네. 하지만 자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게나. 자네의 마음 말일세. 기병대 장교가 자신의 검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자네도 잘 알 걸세. 그는 심혈을 기울여 모든 더러운 얼룩을 제거하지 않겠나? 기억하게. 자네는 하나님의 검이자 그분의 도구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선택된 그릇임을. 나는 자네를 믿네. 대개는 도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순결한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네. 하나님이 복 주신 선물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꼭 빼닮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네. 거룩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놀라운 병기임을 잊지 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병기,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기이며 병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이를

인격은 삶의 원자재. 그것을 좋은 집을 짓든지 쓰레기더미를 쌓는다.

링컨의 말 "인격이란 나무와 같으며 명성이란 나무의 그림자와 같다"

즉 그림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며 나무는 실체이다.

J. P. 모건 "인격이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마5장 산상수훈에서 8복으로 보여 주신 것, 그분의 삶과 복음 전도 사역에서 실증하신 것

바울이 성령의 열매(갈5:22-23), 딤전3장, 딛1장에 기록한 사역자의 자질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정직, 이것은 내적인 완전함(행6:3)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No'라고 말하고 정직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살려고 이집트의 영화와 특권을 버리고 40년 동안 백성의 불순종을 참아냈다.

예레미야의 40년 외침, 국가의 패망, 이집트로 끌려감

인격에 대한 바울의 고백(행23:1): 이 결과 그는 입을 얻어맞았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u>인격은 공적 사역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u>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때에 진실을 말하는 것
누군가가 맡아야 할 책임을 대신 지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대충 대충 하지 않는 거
대충 섬겨도 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무어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인격의 형성은 쉽지 않다.

에머슨의 말 "인격의 효능은 서서히 형성된다. 이전에 지닌 모든 미덕은 인격 가운데서 녹아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배양

1. 성경 말씀을 내적 자아의 일부로 여기며 순종할 때
2.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3. 기쁘게 희생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4.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강화된다.
욥23:10, 시119:71
5. 홀로 형성되지 않는다. 교제의 중요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상처를 경험해야 형성된다.
6. 책임을 맡아 그것을 완수하려고 노력할 때 형성된다.
7. 크리스천 사역을 하면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가 온다: 사람들의 호평과 비판, 상처와 좌절감
8. 아이러니: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 그 반대도 있다.
9. 특히 목사의 경우 시간이 자유롭다. 시간 관리를 정직하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
10. 교회 일을 늘 하는 사람의 문제: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에 탐닉하는 것
설교자의 경우: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함, 함께 기도하는 매일 동일하여 피상적이다.
11.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인격을 연마하는 좋은 기회를 갖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이다.
한 형제님과의 대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 엔돌핀이 넘친다.
12. 인격은 커다란 교회당처럼 서서히 지어진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결함들로 인해, 다윗과 바셋바 사건(삼하11)
13. 인격의 타락은 속사람의 붕괴에서 온다. 잠4:23 말씀
14. 언제 오는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들을 무시하는 데서, 예배(기도, 찬송, 헌금, 말씀, 교제, 섬김)
15. 그 결과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시험한다.
16.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다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OK"
17. 경각심의 부재+더러워진 양심=인격의 부패
18.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 부패(고전15:33-34)
생각의 씨앗, 행동의 열매, 행동의 씨앗, 인격의 열매, 인격의 씨앗, 운명의 열매
19. 표리부동, 일구이언의 삶은 반드시 인격의 몰락, 갈6:7, 약1:15
20. 죄가 장성해서 완료되면 사망, 인격의 사망, 가정, 명성, 사역의 사망, 결국 사역자의 사망
21. 손상된 인격의 회복: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은 건축보다 더 어렵다.
22. 갈6:1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거룩한 땅에 서 있으며 더 고귀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11.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시금석, 희생이다.

희생: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것은 섬김 사역이 아니다(주방, 설거지, 주차 봉사 등 무엇이나 다).

막10:35-45, 45절 유념,

눅24:25-26, 그리스도의 섬김의 척도(빌2:5-11)

희생이라는 말에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교회에서 헌금에 뎄다. 죽도록 일만 하다 왔다. 그러므로 쉬어야 한다'

그렇다고 희생 없이 섬김은 불가능

모세의 삶, 바울의 삶, 한 마디로 희생

존 헨리 조웨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는 목사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목사만 그럴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설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사역자의 삶이 고생과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수 없다." 참 힘든 것이다.

그런데 사역자는 누구인가? 희생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

〈수학의 왕도〉, 사역을 쉽게 해주는 왕도는 없다.

행14:22; 딤후2:3

사역자의 두 종류:

1. 빌1:21, 2. 빌2:21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무엇을 주시렵니까?" (눅17:7-10)

헨리 나우엔: 천주교 사제, "오늘날의 사역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

바울의 말(고후1:4-5)

어떤 희생이 따를까?

1. 힘들게 일했으나 인정받지 못함: 건축 위원장
2. 비방당하고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함: 사모
3. 오해를 받지만 해명할 수 없음: 덜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4.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
5. 낮에는 고생하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룸
6. 고후11:22-30; 4:8-12; 6:3-10

목사의 문제:

1. 대개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로 가슴앓이를 한다. 인간관계의 갈등
2. 외관상 열매가 없을 때 힘들다.
3.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등이 그만두려 하였다.

바울의 고백(행20:24; 딤후4:6-8)

부모의 희생 없이 자식들이 잘되기는 어렵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리더들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함

"쉬운 삶을 추구하는 사역자는 힘든 죽음을 맞게 된다"(열왕기상하의 인물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고후5:10-11)

하나님은 고난과 영광이 균형을 이루게 하신다.

대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영광이 없다.

지옥에는 영광이 없다. 천국에는 고난이 없다(벧전5:10).

예수님의 말씀(요12:24),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는 장래를 위해서 산다 혹은 존재한다. 그런데 먼저 죽어야 한다.

고난과 관련된 사역자의 자세:

1. 고난 예견(벧전4:12)
2. 예수님도 당했다(요15:18, 20)
3. 믿으면 고안이 반드시 온다(빌1:29)
4. 대개 고난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욥23:10)
5. 고난이 큰 보상을 준다(고후4:17)

헌금과 관련된 자세

1. 자발적 헌금(고후9:6-7)
2. 심는 대로 거둔다(갈6:7-10)

예배당 건축 관련

1. 예배당 등을 지을 때 십시일반 정신: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
   균등의 원리(고후8:11-15)
2. 다윗의 성전 터 구매(삼하24:23-25): 희생
3.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느4:16-23)
4.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면 이런 정신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23절).
   한두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문제가 생긴다.
5. 미래를 보는 사역, 희생의 사역

12.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특권: 특별한 권리

성장: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성장을 이야기하니 교인들의 수나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아니다!

이 책의 8장에는 목사로서 은퇴한 아버지와 아들 목사의 대화가 들어 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사직서를 쓴 뒤 참고 참는 아들

아버지의 충고: "너도 알 거다. 사람이 사역에 힘쓰는 만큼 사역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사실을. 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법이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고 달아난다면 다음 목회지에서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곳에서 성장해야 한다."

세미나 강사의 말: "성실히 일한 데 대한 보답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미친 말인가?

이 말의 뜻: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성경 말씀(느6:11)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 소식: 1절, 만나자 2절, 여러 차례 5번째(5), 10절 설명

승리하는 선수의 최상 목표: 명성, 상금 맞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몸과 마음을 지닌 인물이 되는 것"

명성과 돈은 사라진다. 그러나 경쟁하고 싶은 열정, 성취감, 건강한 몸이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마찬가지이다: 교인 수, 건물의 증대, 내가 맡은 것의 큰 성과 OK

그러나 궁극적인 보상: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종, 영적 성장

바울의 권고(딤전4:15-16)

유익을 얻은 것 혹은 진보는 '새 영토로 나가는 개척자'를 보여 준다.

사역자는 두 종류: 개척자와 정착자, 다수는 정착자가 되기를 원한다.

요즘 나도 치쳐서 정착자 혹은 그만 두는 자가 되고 싶다.

예레미야의 불만(렘12;1-2), 요청(3), 주님의 말씀(렘12:5), 더 참아야 한다.

심지어 가족들도 배반하다(6)

이것이 사역이다. 이 가운데서 성장해야 한다.

딤후2장의 사역자: 전심전력하는 모습, 1. 청지기(2): 지키고 투자해야 하는 자원

2. 군사(3-4): 대적들, 3. 경기하는 자(5): 달려야 할 경주, 4. 농부(6); 밭과 씨

이런 일을 하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말(고후9:6, 8, 10-11)은 사역자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는 세상의 도소매업자가 아니다.

주님의 자원을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뿌린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

주님의 양식(요4:34):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런 양식을 먹으면 성장한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 비극: 침체, 퇴보

우리의 성장이 멈출 때 사역은 정체되고 와해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삶 영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한다. 열정 있는 사람들을 배척한다.

교회에 마찰이 없다는 말의 두 의미: 정말 좋은 교회, 성장이 멈춘 교회

직원들, 혹은 사역자들은 기계처럼 돌아간다. 계3:10, '실체가 없는 명성'

사역의 대상도 이것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1.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심을 믿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나의 장점을 살려라.

2.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라. 폭 넓은 독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

공부란 무엇인가? 중요 사항을 기록하고 글의 의미를 숙고하며 책의 견해와 내 견해를 비교/검토하는 것,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을

3.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잘 보이려고 위선과 가식을 보이면 안 된다.

거짓 기도와 묵상,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하기, 그래야 장사치의 사기와 속임을 행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정직하면 내게도 정직하게 된다.

4.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도우려 한다. 전4:9-10, 잠27:17

자신의 생각을 북돋우며 자신의 견해에 도전하고 영적 정신적 근육을 강화해 주며 꿈과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토머스 머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의 지도도 받지 않는 관조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비전을 신뢰한다. 자기 말만 매력적으로 여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확신과 동일시한다. 자기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 그가 느끼는 것은 실상과 다르다. 즉 그는 현실성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무오성을 확신한다....이런 사람은 도시나 국가 혹은 종교 체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 세상은 이런 몽상가가 남겨놓은 흉터로 뒤덮이게 된다." 나찌 독일의 히틀러, 진화론의 찰스 다윈 등

목사나 성도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언자를 여럿 두어야 한다.

5. 그만 두려는 생각을 누르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이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지만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열매 없이 단지 버티려고만 하면 실패한다.

오랜 기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시1:3. 92:12-15)

성실한 사역의 특권은 은혜와 영적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을 닮는 것이다(벧후3:18),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해야 한다.

필립스 부룩스의 말 "쉬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임무를 맡겨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잇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6.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를 구하기 전에 뿌리를 확고히 내리려고 노력하라. 성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보다 쉽다."

건강한 교회, 섬김 조직

교인들의 일체감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쏟는가?

생명력 없는 사역은 치우고 새 사역을 시작하는가?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가? 모방만 하는가?

교인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들리는가?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가?

동일한 미끼로 낚시하는가? 새롭게 개발하는가?

교인들이 말씀의 초장에서 즐거이 돌아다니는가? 목사는 설교에 푹 빠져 있는가?

일꾼들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일꾼들을 파송하는가?

주님 도전거리를 주시는가? 우리는 순종하는가?

개인적인 관심에서 교회 중심적인 관심으로 변하고 있는가?

"일부 성공한 설교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성숙이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주님 안에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력은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13.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다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원동력: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힘. 모든 사물의 활동 근원이 되는 힘(driving force)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1862-1935),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야구 선수, 방탕한 삶, 1886년 회심, Pacific garden mission의 전도, 어머니의 애창 찬송가, 20세기 초반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49년 동안 복음 선포, 열정적인 설교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구원받았다고 전해짐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항상 이사야서 61장 1-2절, 강조, 눅4:18-19

그는 성령님의 파워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이 복음 사역의 원동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충만

요한의 고백(요3:34)

베드로의 고백(행10:38), 주님이 성령님을 필요로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빌리 선데이가 태어날 무렵, D. L. 무디, 시카고 화재 이후 뉴욕을 감, 월스트리트에서의 성령 체험

무디의 고백: "이제 그만! 오 주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고 외칠 정도였다.

이후부터 무디의 설교는 달라졌다. 무디는 "나는 다시 설교하러 갔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수백명 씩 회개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 축복된 경험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무언가 달라졌다.

무디나 선데이 모두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함 성도, 무디의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의 특권을 저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의 사역: 사람들이 놀랐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흥에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었다.

대규모 예산(행3:6), 신학 과정(행4:13), 정치적 영향력(행5:28), 대규모 교단

이들의 사역의 비결은 성령님의 충만이었다(행2:4).

이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다(행4:31).

신약성경에서 충만하다(filled with)는 대개 '지배를 받는다'는 뜻

위선이 가득하다(마23:28), 분노가 가득하다(눅4:28).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곧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는 절제(temperance), 성령님의 통제라는 뜻이다.

대언자들(고전14:32)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자제하며 지혜롭게 살게 된다(엡5:17-18).

영적 체험: 자성과 자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No!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일을 하게 된다.

성령님의 충만은 돈으로 살 수 없다(행8:18-24).

그러나 간구하면 얻을 수 있다(요7:37-39).

성령 충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3단계, 10단계, 불필요 등

무디처럼 동일한 것 No!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눅11:9-13).

성령님은 누구에게 충만한가?

1. 거룩한 영, 그러므로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거룩한 표준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
2. 진리의 영,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 결과 복종할 수 있다. 거짓과 속임이 있으면 안 된다.

3. 그리스도만을 높인다(요16:14), 그러므로 내 영광이나 교회의 영광이 되면 일하지 않는다.
4.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행1:18).
5. 종종 연약할 때 강하게 일하신다(고후12:10)
다윗과 골리앗,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

존 브로더스의 설교학 논문: "우리는 공예배를 관리하고 설교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한다. 그 뒤에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즈: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자신이 준비한 것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준비를 멸시하고 열정과 기름 부음, 성령 충만만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나 저거가 아니라 둘 다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바라는 바른 방법은 준비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독서, 기도, 순복, 증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스펄전의 말: "사역자인 우리에겐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직무에서 그분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명목상의 직무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이 없다면 그분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요15:5, 이분이 성령님의 충만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원래 의미, 포로 생활 후 귀환, 성전 건추기 원활하지 않음

솔로몬 성전과 다르다. 재물이 없다.

힘: 군대의 힘, 능력: 개인의 힘, 내 영(학2:5)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성전 재건: 큰 산, 낙심, 외부의 적, 흉년, 경제 불안정, 백성의 불순종

주님의 은혜로 평지가 된다(7).

밴스 하브너: 우리는 성령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방법들을 쓴다. 그리고는 가짜 불을 내리고 가짜 음성과 뜨거운 공기를 불어냅니다. 이런 거짓 오순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친다(9).

14.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지금까지 총 13번, 1.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개관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2. 사역의 정의: "사역(Ministry)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3. 사역자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사역은 섬김이다.
4.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 5.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 6.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7. 부르심에 신실한 사역, 8.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 9.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10.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11.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12.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13.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다
오늘은 위어스비의 책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10장,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30년 섬기던 목사의 은퇴, 5년 전에 와서 교회를 이어받은 젊은 목사의 고백
"첫 설교부터 다른 목사 흉내, 여러 목사들의 흉내를 많이 냈다. 빌리 그래함, 척 스윈들, 찰스 스탠리, 크리스웰 등" 지금 식으로는 맥아더, 파이퍼, 위어스비 등
은퇴 목사의 충고 "남을 따르려 하지 말고 본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뒤 담임 목사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담임 목사는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뒤 자신을 돌아보니 많은 점에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됨
예수님은 실제로 교회를 목양하지는 않으셨고 소수의 무리를 목양하시며 섬김 사역의 본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No,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위어스비의 정의: 사역이란 한 마디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일에는 죽을 때까지 중단이 없다.
성화(sanctification):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의 친구들과 대적들은 감지한다.
중요한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더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
우리 교회: 우리만 구원이 있다. No!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고쳐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예수님의 말씀 막10, 권세를 차지하고 으뜸이 되려는 제자들, 주님의 말씀 42-45, 주님이 오신 이유
servant leadership, 리딩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성도들을 착취하게 된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김, 목사든 다른 섬김 리더든

예수님은 어떻게 섬김을 감당하셨는가?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인간의 한계 체득, 굶주림, 피곤함, 고통, 우는 것 등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막1:35-39), 말씀 의지(마귀 시험 기록된 바), 성령님의 권능 의지
우리도 그 본을 따라 그리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요8:29)
이것이 우리 사역의 옳고 그름 판단 기준: 아첨 No, 편파성 No!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인정함(마22:16)
회개하는 죄인들은 무슨 죄라도 용서, 심지어 십자가 강도까지
반면에 완고하여 위선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 마귀의 자식들(요8:44)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배척, 예수님은 죄인들 사랑, 가까이 함(눅15:3-7)
무조건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사람들은 사랑하심

설교 중에도 사람들이 필요를 해결하려고 오면 방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설교를 중단하시고 도와줌. 쉴 때에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영적 양식(요4:34)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섬김 사역을 해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빌2:5-11

종의 직무 수행, 약육강식의 이기적인 현시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삶을 사셨다.

다만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 쓰레기 청소, 교회 건축 풀링

빌2:4 실천

역설: 남을 돕고 섬길 때 내가 성장한다. 목사로서 설교하니 내가 성장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다 보니 내가 강한 자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시간, 재정을 희생하여 성도들을 돕지 않으면 공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특히 목사의 경우 피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더불어 지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

청장년 집회, 중고등부 집회, 리더들 참석 부탁, 거의 안 감

예수님의 최후 섬김: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틀

과연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갈2:20)

지금은 십자가 형틀이 없다. 다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 섬김의 특징 다시 요약: 항상 아버지를 의지함, 성령님의 파워 의지

그 결과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름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

섬기려는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자주 보아야 한다. 복음서의 그리스도에 심취해야 한다. 실제 행함

서신서의 그리스도, 모본과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섬김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틀에 박힌 목회를 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의 사정에 맞게 들어 주셨다: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비판적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양심을 파고드는 말씀, 늘 새롭고 도전을 주는 방법

사역의 결과가 늘 생산적이지는 않았다: 1. 젊은 청년 실망, 2. 생명의 빵 설교 후 거의 다 돌아감 3. 10명의 나병 환자 9명 돌아감, 4. 가룟 유다 자살, 5. 거의 모든 유대인들 배반 6. 겨우 120명

인간의 눈에는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심: 완악한 서기관들 슬퍼하심, 나사로, 예루살렘을 행해 우셨다.

섬기는 자들도 이러 감정을 주님께 표현해야 한다.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잠27:17).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님처럼 고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요17:4; 딤후4:6-8).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시편: 시17:1, 2, 8-9, 13, 15